



팔순을 앞둔 노구에도 키보드 앞에서 찬불가 창작에 여념이 없는 운문 스님. 요즘도 매일 한국 이상씩 노랫말을 만든다.

# 부처님만 생각하면 노랫말 저절로 나와



##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운문 스님 (운문사 주지)

지난해부터 차츰 회복돼 지금은 아주 좋아졌어. 더 좋은 노랫말을 만들고 회향하라는 부처님 뜻으로 믿고 노랫말 만드는 일에 더 정진하고 있어.”

이틀동안 지켜보니 스님은 대부분의 시간을 키보드 앞에 앉아 가사 만드는 일에 몰두했다. 자신이 좋아하지 않으면 정말 불가능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팔순을 코 앞에 둔 나이가 무색할 정도로 스님은 열심이었다. 빼곡히 정리해 놓은 오선지 위에 채워져간 노랫말은 200쪽 분량의 책으로 묶어도 족히 서너 권이 넘었다. 대부분 요새 쓴 것이다. 오히려 작곡가들이 스님의 노랫말을 제대로 소화해 내지 못할 정도다.

“지난해 말 원고를 넘겼으니 올 6월안으로 내 가사집이 새로 만들어 질거야. 예전에는 가사쓰고 어디 놔 두었는지 모를정도로 정리를 안 했는데, 지난해 몇 달동안 차곡차곡 정리해 출판사에 넘겼어. 불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거야.”

그런 왕성한 창작의 샘물이 어디서 뿜어져 나오는 것일까. 스님은 한마디로 원력이라고 말했다.

“내가 평범한 일반 가요를 만드는 작사가였다면 아마도 이렇게 많은 곡들을 세상에 내놓지 못했을 거야. 평생 번뇌로 방황하는 대중들에게 부처님의 가르침 같은 진리를 쉬운 노랫말로 바꿔 주어야겠다는 원력이 지금까지도 찬불가를 만들게 하는 힘이 되었고 개인적인 수행의 방편도 됐지.”

이심전심(以心傳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스님의 이런 발원과 노력이 불자들에게 전해져 찬불가 한두 곡씩은 부를 만큼 포교가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래도 여전히 스님은 배가 고프시란다.

“물론 과거에 비해 불자들의 입에서 찬불가가 자주 불리워지는 것은 사실이야. 하지만 아직도 법회 의식이나 특정 무대가 주를 이루고 있지. 찬불가의 역사도 거의 반백년을 넘어가고 있는데 법회 뿐만 아니라 집에서 생활할 때나 아니면 불자들이 아우회할 때도 자연스럽게 불리워졌으면 좋겠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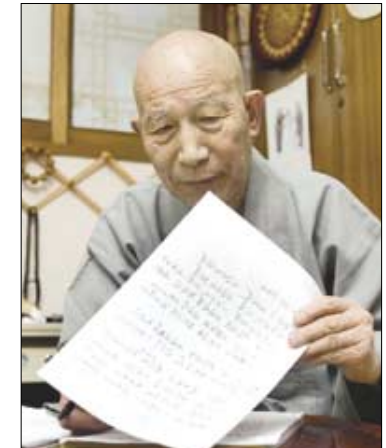
신기한 것은 제대로 음악교육을 받은 이들도 작사·작곡은 쉽지 않은 일인데 운문 스님은 음악교육을 한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것이다.

“물론 전문적으로 음악교육을 받은 사람들에 비하면 분명 실력 차이가 많이 나겠지만 불교음악을 실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부처님을 찬탄하고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하며 가슴에 깊이 새기면 누구든지 좋은 가사를 만들 수 있어. 이걸 내 경험에서 비롯된 거니가 불자들에게도 한번 해보라고 권하고 싶어. 부처님만 생각하면 저절로 환희심이 넘쳐 가슴 속에서 노랫말들이 저절로 튀어 나오더라구.”

수북이 쌓여 있는 찬불가 원고 동자를 보며 깨달았다. 처음 찬불가 운동을 시작했을 때나 회향할 시기인 지금이나 자신의 원력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는 여려한 모습이 바로 저런 것임을. 그런 모습 속에서 포하나의 가르침도 배웠다. 세상에 우리가 세운 모든 계획을 언뜻까지 여여하게 실천하라는 무언의 가르침.

운문 스님은 현재 '부처님 일대기' 등 장편곡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글=김주영 기자·사진=박재원 기자



그동안 써놓은 가사를 한데 묶어 책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침실 공양이 끝나면 건강관리를 위해 인근 공원에서 산책을 즐긴다.

즐거운 노래를 많이 만들고 불러서일까? 서울 흥은동 운문사에서 만난 운문(雲門) 스님은 2년전 별파보다 더 해맑아 보였다. 동자승처럼 해맑은 모습에서 반평생을 수행하며 산 수행자다운 품모가 물씬 전해졌다. 천진불심(天真佛心) 그 자체다.

1월 12일 운문 스님은 함박 웃음으로 기자를 맞아 주었다. 굳이 바쁜 모습을 찾으려면 오히려 좋아진 건강때문에 보다 여유적으로 변한 것이다.

“아, 뭐하러 또 왔어. 그동안 내 얘기를 너무 많이 해 독자들이 지루해 하지 않을까?”

“스님 근황을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라며 기자는 스님의 기우를 풀어드렸다.

지난해 9월 스님은 30여년동안 주석했던 구기동 운문사를 떠나 흥은동에 조그만 빌라를 빌려 임시 거처를 마련했다. 삼보불교음악협회가 올해말부터 구기동 운문사에서 불교음악역사관을 건립하기 때

문이다.

“법당은 똑같아. 수행자에게 처(處)가 법당 아니겠어?”

스님이 거처하는 빌라에서 이불간 스님과 생활해 보니 새벽 4시 아침 예불을 시작으로 점심과 저녁에도 예불을 모시며 사찰에서와 다름없는 일과였다.

“난 일상이 단조로워, 점심 공양하고 집앞 공원에 나가 포행하는 것 빼놓곤 거의 두문불출이야. 법당에서 예불모시고 관음정근하고, 노랫말 만드는 것이 다지”

스님은 그랬다. 저러 공양후엔 노래 가사를 쓰셨다. 40여년간 1천여곡에 달하는 찬불가를 만들었지만 아직도 찬불가포교에 걸음을 느끼고 있었다.

“요즘들어 쓰여지는 노랫말이 더 가슴에 와 닿아. 인생을 회향할 나이가 돼서 그런지 이제야 비로소 찬불가가 땀 조금은 알 것 같아. 기자양반도 알듯이 내가 건강이 무척 안 좋았잖아. 그런데 웬일인지

## 예불·공양·포행 시간 빠른 작사작업 몰두

“이제야 비로소 찬불가가 땀지 알것 같아”

이제 스님 과 신도들도 건강을 생각할 때입니다.  
**추운겨울 온열기능이 되는 참선방식**으로 수행정진 하세요~  
 스님, 선객, 기공수련자, 일반신도를 위하여... 태화산 광현스님이 20년 경험으로 만든 방식

스님용  
참선방식

참선  
방식

절방식

건강  
좌욕방식

지공자  
방식

법회 및 기도시 가장 편안한 자세를 유지하게 하고 세라믹보드의 원적외선과 음이온, 토르말린, 피톤치트에 의한 건강 증대효과 있습니다.

**제품 효능**

- 잠시간 사용에도 가장 편안한 자세 유지와 바닥의 냉기가 스며들지 않습니다.
- 최후의 안구를 예방하여 줍니다.
- 장시간의 좌선 및 운공시에도 전신에 피로감이 오지 않습니다.
- 양미간 계서도 단전에 공력이 증가됨을 느끼실수 있습니다.
- 단전의 연정하기에서 연기화신을 이루어 연신환하여 까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품 특징**

- 원적외선 대량방출에 의한 건조 증질 효과
- 세라믹히팅보드를 사용하여 전자파 걱정이 없습니다. (열선기 아님)
- 세라믹히팅보드의 복사열은 땅이 차지 않습니다.
- 특수제작된 메모리폼은 바른자세를 유지하게 합니다.
- 표면에 처리된 음이온수, 토르말린, 피톤치트는 살균, 정화기능이 있습니다.
- 최고급편단사 및 온도조절기능이 있습니다.

**제품 구성**

- 커버 : 최고급 내지 및 원단사용
- 쿠션 : 특수제작 및 설계 메모리폼
- 열원 : 신기술 "세라믹히팅보드"
- 콘트롤러 : 온도조절 기능

**제품 가격**

- 스님용참선방식: 180,000원
- 참선방식: 145,000원
- 절방식: 75,000원
- 건강좌욕방식: 94,000 ~ 98,000원
- 지공자방식: 58,000/88,000원

**제품 구입 및 문의**

- 전화: (031)429-3383 / 010-6368-3346 / 011-281-5619
- 홈페이지: www.heatway.co.kr
- 제 조 원: ㈜예간하이텍
- 계좌번호: 농협 591-17-004807 (예금주: 예간하이텍)

※ 제품에 관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특허 및 인증제품

## 천안통.천이통.의통

양수영 원장님은 천안통, 천이통, 의통이 열린분으로 영화 화면 보듯이 영가들과 대화를 하여 병의로 인해 중병에 시달리는 분들을 치유합니다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환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병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는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하늘의 기운이 들어오는 **약손을 만들어 드립니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중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 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 분  
 ※ 전생치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영가를 확인하면 어떠한 사실도 알게됩니다.  
 ※ 전화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천일선원 소백산수련원**  
**054)638-2224 <경북영주시 단산면 구구리>**

# 결과 집착 말고 과정 즐기세요

## 운문 스님의 가르침

나는 틀날 때마다 청소년 불자들에게 공(空)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예화를 통해 쉽게 설명해 주려고 노력합니다. 성인불자들에게도 어려운 얘기지만 어릴때부터 자주 들다보면 나중에는 다른 사람보다 더 빨리 깨우칠 것 같다는 생각에서요. 불교에서 공사상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공사상의 이치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불자들중에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일체 만법은 인연에 따라 생겨나서 인연이 끝나면 사라져 버립니다. 영원히 존재하는 실체(實體)가 없지요. 이것이 공의 기본 이치입니다. 우리 인간사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인연의 모임으로 태어나서 소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거치면서 조금씩 변화하다가 마침내 인연의 모임이 끝나면 본래의 자리인 죽음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공을 잘못 생각하면 허무하다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허무는 공에 대한 편견에 불과합니다. 공의 이치를 깨달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진실한 가치의 발견을 위해서입니다. 모든 사물을 영원한 것처럼 집착하는 데서 비극이 생겨나니까요. 그래서 이 집착을 깨뜨리기 위해서 잠시 인연에 의해서 생겨났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져 버리는 공의 이치를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해부터는 우리 불자들이 정말 계획이나 결과에 집착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요즘 내 자신을 돌이켜 보니 1천여곡에 달하는 무수한 곡들도 찬불가 포교에 대한 집착에서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차피 대중들에게 회자되다가 허공으로 사라지는 노래에 불과한데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노랫말을 탄생시키는 결과에 집착하기 보다는, 그 과정을 즐기겠습니다. 내가 즐거운 마음으로 만든 노랫말이 대중들에게 불려지면서 같이 즐거워지길 바랍니다. 그러다보니 오히려 노랫말도 더 많이 만들어 지는 것 같아요.

세상이지가 다 그런 것 같습니다. 왜 '열심히 하다보니 저절로 유명해 졌다'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결과나 현상에만 집착하면 오히려 그 뜻을 더 쉽게 이룰 수가 없어요.

새해에 내가 무엇을 하겠다, 꼭 이루겠다는 계획을 누구나가 두세가지씩은 세워놔야 합니다. 반드시 이루려면 오히려 모든 것을 비워야 합니다. 그리고 깨끗이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몰두하고 그것을 즐기십시오.

예컨대 공부면 공부, 운동이면 운동, 일이면 일, 결과에 집착하지 말고 그것들을 즐기십시오. 그러다보면 자신이 목표로 한 결과에 성큼 다가가는 자신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새해부터는 기도 못지 않게 찬불가도 큰 소리로 목청껏 불러 주었으면 합니다. 찬불가를 듣고 부르는 일 또한 사찰에 나가 법문 들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신행 생활이지요.

찬불가는 다른 노래처럼 단지 멜로디가 좋아 듣는 것이 아니라 그속에는 부처님이 설한 진리의 말씀이 녹아 흐르기에 마음에 흥이 겨워 듣고 부르다 보면 어느새 법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나는 가사를 짓는데 있어 내 개인적인 감정보다도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말씀을 노래로 잘 옮길 것인지 고민을 많이 합니다. 노랫말을 짓기전에 경전과 계승을 갖다 놓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조사스님 계승을 인용해 지은 곡들도 몇곡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찬불가의 가사를 열심히 되새기며 부르는 것도 경전공부를 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왜 찬불가를 새해부터는 목청껏 부르라고 했는지 이제 알겠지요?

그리고 하나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꼭 화두를 하나씩 가지라고 말입니다. 특히 나는 가사가 안 써지거나 마음이 안잡힐 때면 화두인 '이렇고'를 잡고 참선을 합니다. 화두는 바로 깨달음을 열어주기 위한 하나의 문제를 제기하는 수단이지요. 스님이 좌선을 하고 참선을 할 때만 던지는 물음만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수학문제라든가, 과학문제, 또는 수수께끼 같은 문제도 일종의 화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들은 단지 지식이나 경험에 의해 해



잠시 인연에 의해 생겨났다가 인연이 다하면 사라져 버리는 공(空)의 이치를 깨달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운문 스님.

결되는 문제이지 인생의 본질에 대한 문제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문제가 풀렸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까지 해결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화두하고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불교의 화두는 인생의 본질, 즉 마음을 해결하는 문제 제기로서, 이것은 오히려 지금까지 배우고 익혀온 모든 지식이나 경험들을 내던짐으로써, 지식으로 인해 가리워졌던 자신의 본 마음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사바세계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은 마음이 앞장서 일어난 것이고

마음에 의해서 이뤄지기 때문에 본 마음자리를 찾는 일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인생의 큰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것에만 골머리를 썩히지 말고, 오히려 그 문제를 떠나 화두를 잡아 보세요. 정신이 맑아지면 오히려 난관을 헤쳐 나가는 지혜도 열립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부처님을 위해 보배의 탑을 가득히 쌓고, 불전에 많은 공양과 예배를 올린다 해도 부처님께서 중생 교화를 위해 세우신 큰 서원을 실천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빛을 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시대 감각에 알맞는 포교방안을 수립해 젊은이들을 교화 육성하고 불교의 생활화, 대중화, 현대화에 힘쓰는 것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정리=김주일 기자

##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48>



### 좋은 친구의 향기

부처님께서 난타와 함께 향을 피는 가계에 있습니다. 가계에는 여러 가지 향을 담은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부처님이 난타에게 말하셨습니다.

“난타야, 저 향 상자를 집어보아라.”  
난타가 향 상자를 집어 들자 부처님은 곧 다시 내려놓으라고 말하셨습니다. 그리고 물었습니다.

“지금 네 손의 향기를 맡아보아라. 어떤 냄새가 나고 있지?”

난타는 부처님이 시키는 대로 향 상자를 내려 놓은 뒤에 제 손의 향기를 맡아 보았습니다.

“아, 부처님, 아주 향긋한 냄새가 납니다. 달콤하고 은은하고 미묘한 향기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 누구나 좋은 벗을 가까이하고 항상 함께 있는 것도 그와 같다. 함께 있으면 그의 좋은 점을 본받고 따를 것이니 마치 은은한 향이 제 몸에 스며드는 것과 같다. 그리고 좋은 벗과 친하기 때문에 반드시 그 이름이 널리 퍼질 것이니 향기가 바람을 따라 널리 퍼져나가는 것과 같다.”(법원주림 제51권)

해주어야 한다는 말일 것입니다.

둘째는 상대를 위해 자기 어려운 것을 줄 수 있어야 좋은 친구라고 합니다.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을 상대가 가장 필요할 때 내 손으로 기꺼이 내어줄 수 있다면 나는 그의 좋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말입니다.

셋째는 상대를 위해 참기 어려운 일도 참아낼 수 있어야 좋은 친구라고 합니다. 달린 삼키고 쓰면 밟는 관계는 절대로 친구 사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넷째는 서로 비밀한 일을 알려주어야 좋은 친구라고 합니다. 친구 사이에는 숨기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서로 간에 똑같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상대방의 비밀은 잔뜩 알고 있으면서 내 이야기를 털어놓지 않는다면 대등한 친구사이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다섯째는 서로 허물을 감추어주어야 좋은 친구라고 합니다. 상대방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것은 그의 치명적인 허물을 알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나를 믿고 털어놓은 이야기 속에는 남에게 보여주기 싫은 허물이 들어있기 마련입니다. ‘그게 네 허물이야’라는 뼈아픈 지적도 필요하겠지만 친구 사이라면 처음부터 그런 허물은 알지도 못하였다는 듯이 덮어두고 감추어

## 향상자 집었던 손에 은은히 남는 향기처럼

## 좋은 벗은 우리 영혼 살찌우는 고결한 존재

머칠 전 새 수첩을 사용하기 시작하면서 지난 해 쓰던 수첩의 주소록을 펼쳐보았습니다. 매년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있지만 내 수첩 속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것에 새삼 놀랐습니다.

그 중에는 1년 동안 단 한 번도 연락을 주고 받지 않은 이름, 몇 년 간 기재되어 있다가 슬그머니 다음 해의 새 주소록에서 빠지는 이름, 수십 년간 내 주소록의 지정 자리를 다른 이름에게 양보하지 않는 이름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이름을 찬찬히 읽어다 보니 과연 이들의 수첩에도 내 이름이 들어가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주소록으로 내 이름이 몇 차례나 고스란히 옮겨갔을지도 궁금해졌습니다. 그리고 보니 그 사람들이 내 친구라는 생각은 지금까지 한 번도 쉬지 않고 해왔습디만 내가 그의 친구라는 생각은 별로 해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에게 좋은 친구일까요, 그렇지 못한 친구일까요?

<법원주림>에는 좋은 친구가 되는 일곱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상대를 위하여 자기 어려운 일을 해줄 수 있어야 좋은 친구라고 합니다. 친구를 위해서라면 나의 명성과 지위에 어울리지 않는 일도

주는 정도 중요할 것입니다.

여섯째는 그와 친하다는 이유로 내가 고통 받아도 상대를 버리지 않아야 좋은 친구라고 합니다. 사람이란 본래 자기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쪽으로 마음이 흐르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손익을 따지지 않는 마음, 손해를 보더라도 여전히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우정의 또 하나의 조건이라고 하니 내 마음을 반성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곱째는 상대가 가난하고 불행이 있어도 업신여기지 않아야 좋은 친구라고 합니다. 누구와 친한가에 따라서 세상은 나의 가치를 결정짓습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의 잣대는 외형적이고 물질적입니다. 초라한 겉모습 속에 반짝이는 그만의 가치를 발견하는 안목은 바로 친구인 내게 있기 때문에 결코 세속의 잣대에 흔들려 친구를 저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내 주소록에 담긴 사람들이 내게 일곱 항목을 얼마나 채워주었는지를 따져보다가 세상 나는 그들에게 이 일곱 가지 중 몇 가지라도 해당할까 생각하니 불안해집니다.

을 한해는 그들의 향기로운 친구가 되도록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합니다.

■ 이미형(중국경원역권위원)

# 등 불로 전하는 자비 광명

# 찬 덕 연 등

삼보에 귀의하옵시다.  
저희 찬덕연등과 임직원들 성심껏 키워주신 사부대중께 감사드리며 이에 보답하고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찬덕연등은 전통의 미와 현대의 감각을 잘 조화시켜 한국을 대표하며, 세계에 우리 불교의 전통문화를 알리는 소명을 갖고 정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외부에 시공된 전선케이בל

등표 위치 높이 조정 작업

연등 자동 승강장치 작동

찬덕연등에서는 **KS케이ابل**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검토후** 시공합니다.  
(원하시는 규격에 맞추어 직접 제작 · 시공 합니다)

## ChanDuk Lotus Lamp

종 등

팔각봉축접등

공 단 등

팔각조립등(반아삼경)

주름등(만월봉축등)

공단형금등

**찬 덕 연 등**  
경기도 이남시 준중동 180-1

전화 : 031)792-6288, 794-4055 팩스 : 031)794-6288    www.chanduk.com / 한글홈페이지 : 찬덕연등

**※ 연등, 카다로그 요청시 발송해 드립니다**

공고 : 찬덕연등에 사용된 캐릭터는 상표특허등록된 캐릭터입니다.  
캐릭터 도용시에는 법적제재조치가 있음을 공고 합니다.

사찰명을 인쇄 할 경우 제작시간이 약 30일이 소요되오니 미리 주문하시기 바랍니다.(주름등, 종등)